

# 다니엘서 - 번호 191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직물: 트럼프 시대의 복잡한 양상과 일요일법의 서곡을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4-21

올바르게 이해하면,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모두 같은 장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일치한다. 40절은 1989년에서 41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11장 1절과 2절은 1989년에 시작되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운동을 지목하는데, 그 선거는 무신론의 짐승에 의해 트럼프에게서 빼앗겼다. 그 두 절은 트럼프가 "그리스의 온 나라를 들끓게 한다" 할 때 시작되는 투쟁을 지목한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은 그의 첫 임기 내내 계속된 전쟁을 촉발했다. 하원은 2019년 12월에 그를 탄핵했고, 2020년 1월 13일에 다시 그렇게 했다. 두 경우 모두 상원은 하원의 시도를 무산시켰다. 그럼에도 그는 미국 역사상 두 번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글로벌리즘이 요동쳤다.

이제 내가 네게 진리를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는 아직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의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심히 부요하리라.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져서 모든 사람을 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하게 하리라. 다니엘 11:2.

40절과 마찬가지로, 2절은 2021년 1월 20일에 끝난 트럼프의 첫 대선 캠페인과 대통령 임기에 관한 숨겨진 역사를 남긴다. 2021년 그날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유엔(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의 상징으로 소개되는 3절에 이르기까지, 삼중 연합이 수립되는 일요일법에 이르는 2021년 취임식부터의 역사는 숨겨진 역사에 해당한다. 40절과 2절의 숨겨진 역사는 모두 일요일법을 향해 진행되어 그 지점에서 끝난다.

10절은 1절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1989년의 종말의 때로 데려가며, 둘 다 40절의 실제적 증언의 결론을 지적한다. 다만 40절의 그 결론과 곧 임할 일요일 법령 사이에는 여전히 역사가 남아 있다. 1989년을 지목하는 것을 넘어서, 10절은 40절의 역사에 대한 세 증인을 한데 묶는 열쇠가 되며, 이는 1989년에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교황권과 그 대리 권세인 미국의 활동을 보완해 준다. 그 세 증인은 1989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40절의 예언적 구조의 중요한 요소를 확립한다.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 사이의 전쟁을 다루는 역사적-예언적 구조, 곧 북방의 왕이 범람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묘사되는 그 구조는 40절과 10절에서 확인된다.

역사적 예언 구조는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상대로 행하는 '넘쳐흐르며 지나감'이 두 구절 모두에서 동일한 히브리어 표현이라는 문법적 증거로 보완되며, 이는 이사야 8장 8절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증언에서도 마찬가지다.

10절에서 북방 왕은 "반드시 와서 넘쳐 흐르고 지나갈 것이며", 40절에서는 북방 왕이 "넘쳐 지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사야 8장 8절에서는 북방 왕이 "넘쳐 가리라"고 한다. 이

세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이 동일하지만, 번역이 약간 다를 뿐 의미는 같다. 10절의 남방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였으나, 40절의 남방 왕은 영적 이집트, 곧 무신론의 왕인 소련이었고, 이사야에서는 남유다 왕국이 남방 왕이었다. 각각 북방 왕은 셀레우키드 제국, 그다음에는 교황권,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앗수르였다.

서로 대응하는 세 구절 가운데 두 곳에서는 북방 왕의 침공이 어디에서 끝나는지가 구체적으로 지적된다. 10절에서는 그것이 "요새"에서 끝나는데, 이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집트의 국경에서 그들의 원정을 끝냈을 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 북방 왕이 "반드시 와서 넘치고 지나갈 것이요, 그 후에 돌아와 분기하여 자기의 요새까지 이르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새"는 그들의 왕국의 수도였던 이집트를 가리켰다.

이사야 8장에서는 산헤립이 "유다를 지나가며, 넘쳐흘러 지나가고, 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수도", "왕", "머리"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바로 그 본문에서 두 증인에 의해 확립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상징들이다.

이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깨어져 더 이상 한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시리아는 나라이고, 다마스쿠스는 수도이며, 르신은 왕이고, 수도와 왕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상징이다. 수도와 왕은 둘 다 '머리'다. 산헤립이 유다의 '목'까지 왔을 때 그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멈췄다. 그는 '목'이 떠받치는 '머리'에서 멈췄기 때문이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를 상대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요새'에서 멈췄고, 그 '요새'는 이집트라는 나라였다.

다니엘서 11장 10절과 이사야서 8장 8절은, 이사야서 7장 8-9절의 맥락에서, 두 증인으로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북방 왕이 1989년에 남방 왕을 "범람하여 지나갔다"고 할 때, 머리, 곧 남방 왕국의 수도였던 나라(러시아)가 그대로 서 있었음을 증언한다.

10절의 "요새"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하는 열쇠이며,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진리를 입증하는 예언적 적용은 히람 에드슨을 위해 봉인이 풀렸고 1856년 Review and Herald의 기사들에 실린 바로 그 동일한 구절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그것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 기사들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규명한다.

2023년 7월 이래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그 동일한 구절들을 통해,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두 가지 2,520년의 예언이 흠어짐의 기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보여 준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 계시에서 "머리"는 인간의 더 높은 본성으로 규정된다. "머리"는 인간의 성전에서 "요새"이며, 화잇 여사는 그 요새를 영혼의 성채라고 규정한다. 성채는 요새이다.

따라서 다니엘 11장 10절의 외적 '요새'는 또한 내적 '요새'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외부)이 시작되었을 때, '다운 언더'와

웨일스(내부)에서 온 사탄적 가르침이 Future for America 운동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봉인 과정은 또 다른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까지 공화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뿔이,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성읍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대선 캠페인에서 실패했고, 열 처녀가 지체하는 때가 왔다. 2022년에 트럼프는 세 번째 대선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그의 첫 성공적인 대선 캠페인은 그의 마지막을 의미한다. 2023년에 “광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죽은 마른 뼈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13절부터 15절은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데, 러시아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승리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웃시야 왕의 유배와 결말은 나폴레옹의 유배와 결말을 전형화했으며, 그는 또한 자신의 군사적 승리로 강해지지 않았고, 11절과 12절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를 예표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군사적 승리로 강해지지 않았다. 웃시야와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모두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려 했으나 둘 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되었다. 웃시야 왕은 그렇게 하려다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의 이마의 표는 짐승의 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1989년의 남방의 첫째 왕을 전형화하기도 했는데, 그(고르바초프)는 유엔의 일원이 되기 위해 소련을 떠나면서 역시 일종의 유배 상태에 들어갔다. 웃시야 왕과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도 이마에 두드러진 표식이 있었다. 웃시야 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 나폴레옹,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모두 푸틴의 결말을 예표한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각자의 특정 왕조를 종결시킨 남방의 왕들이었으며, 이는 푸틴의 러시아의 종말을 예표한다.

그다음 13절부터 15절은 기원전 200년에 시작된 증언을 열어 보이며, 공화당의 뿔을 대표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를 예표한다. 14절은 교황권이 두로의 창녀로서 음행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때를 표시하고, 15절은 배도한 개신교의 뿔의 계보를 마카베오의 역사와 동일시한다. 이 세 절에는 세 가지 예언적 계열이 담겨 있다.

마카비의 역사는 2절의 끝에서 3절로, 또는 40절의 끝에서 41절로 넘어가는 부분처럼 숨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 맥락은 최소한 처음 조사할 때는 모호하다. 그러나 그 다소 모호한 예언적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로마의 동맹이 제시되며, 그것이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것을 지목한다. 짐승의 형상의 형성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으나 기억하지 못했고 다니엘은 꿈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했던 다니엘서 2장의 숨겨진 역사에서도 예표된다.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는 9장에서 다니엘이 드린 내적 변화를 위한 기도를 보완하는 외적 빛을 구하는 기도를 나타낸다.

마카베오의 계열은 다니엘서 2장의 감추어진 비밀과 일치한다. 다니엘서 2장의 비밀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라는 예언적 수수께끼에 대한 첫 번째 예언적 증언이 되며, 이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한 계시에 기여한다. 일곱에 속한 여덟째와 연관된 두 증인의 부활은, 밀러주의자들과 14만4천의 병행 역사에서 밀러주의자들이 역으로 라오디게아로 이동하는 것이 14만4천이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옮겨가는 것과 일치함을 확증한다.

마카베오 가문의 불분명한 계보와 느부갓네살의 감추어진 꿈은 2023년에 두 증인의 부활 과정이 시작된 이후까지 모두 특별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큰 지진'의 때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데, 그 '때'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남을 가리킨다. 그 재림교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전에, 그리고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은 짐승의 우상의 형성과 관련된 시험이다.

마카베오의 계보, 느부갓네살의 비밀스러운 꿈, 일곱에 속한 여덟째의 수수께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은,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때 성취되는 시험의 과정에 모두 기여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예언적 의미에서 '감추어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들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현재 봉함을 풀고 계시는 진리임을 증명한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뿔을 대표하는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한 인봉이 풀리는 것에, 각 뿔이 서로 병행하며 또한 각 뿔이 이중적인 내적 본성을 지닌다는 진리가 동반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인봉 해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인봉이 풀린 진리에는 일곱 우레의 감추어진 역사의 인봉을 푸는 것과, 히브리어 단어 "Truth"의 정의가 포함된다.

일곱 우레의 마지막 기간이 첫 번째 실망, 이어지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 그리고 대실망으로 마무리되는 세 가지 이정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와 일치한다고 인식되었을 때,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의 완전한 성취의 날짜로 2020년 7월 18일을 지목하는 계시가 그때 확립되었다.

일곱 우레는 2023년 7월 이전에 첫째 천사들의 운동과 셋째 천사의 운동의 병행 역사로 식별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마지막 세 단계의 기간을 일곱 우레로 표상된 특정한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제 그 인식은 확립된 "진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며, 그 안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일곱 천둥의 감추어진 역사도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여덟째는 일곱에 속한다'는 수수께끼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밀러주의자들이 라오디게아로 옮겨 가는 전환과, 그와 병행하는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로의 전환을 식별하게 한다. '여덟째가 일곱에 속한다'는 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 시험에 대한 예언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공화주의의 뿔이 짐승의 정치적 우상을 만들어 낼 때 공화주의의 뿔과 개신교의 뿔이 모두 그 결말에 이르기 때문이며, 이에 대조되고 논쟁을 벌이는 참된 개신교의 뿔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마침내 기치로 높이 들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리들은 2023년 7월 말에 봉인이 풀리기 시작했으며, 이 모든 진리들은 숨겨진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예언적 역사를 나타낸다. 그 숨겨진 역사는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989년의 끝의 때부터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40절의 숨겨진 역사의 예언적 구조를 갖게 되며, 그 위에 다니엘 11장 1절과 2절을 겹쳐 놓을 수 있다. 그다음에는 10절부터 15절까지도 같은 선상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르게 이해하면 13절에서 시작하여 23절까지 이어지는 마카베오의 시간선도 같은 선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두 증인의 선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는 두 증인을 통해 우리는 40절의 숨겨진 역사의 구조를 갖게 된다.

1989년, 소련은 교황청과 그 대리 군대인 미국의 동맹에 의해 무너졌다. 고르바초프에 의해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14만 4천의 종말의 때가 도래했다. 종말의 때부터 미국의 첫 번째 예언적 왕은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다리우스 왕으로 대표되는 배교한 개신교도 공화당원인 레이건의 뒤를 이은 이는 사이러스였고, 이어 다른 세 왕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부유한 네 번째 왕이 있었다.

사이러스 왕은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공언한 글로벌리스트인 첫 번째 부시를 상징했으며, 그 뒤를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클린턴이 이었고, 그 뒤를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공언한 글로벌리스트인 마지막 부시가 이었으며, 그 뒤를 이슬람교도이자 민주당 글로벌리스트인 오바마가 이었고, 그 뒤를 그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대통령이자 배교한 개신교도인 공화당원 도널드 트럼프가 이었다.

2014년 러시아와 교황청의 나치 대리군대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고, 교황청의 이전 대리군대(미국)가 우크라이나 대리군대를 지원했다. 2014년에는 Future for America 운동이 용의 대표자들에 의해 침투를 당했으며, 2015년 도널드 트럼프는 그가 치르게 될 세 차례의 대선 캠페인 중 첫 번째를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캠페인에서 승리했지만, 중간 캠페인은 도둑맞았고, 마지막 캠페인에서는 다시 승리할 것이다. 2020년에는 선거가 도둑맞으면서 공화당의 뿔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참된 개신교의 뿔도 거짓된 예언을 선포함으로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2014년에 시작된 침투로 인해 일어난 것이며, 그 침투는 여러 가지 거짓된 예언적 적용을 도입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흠쳤다.

2020년에 선거와 예언적 메시지가 탈취되었고, 두 뿔은 용의 대표자들에 의해 상징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 선거는 글로벌리스트를 자처하는 공화당원들과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원으로 이루어진 이중 동맹에 의해, 글로벌리스트 선전 매체와 글로벌리스트 상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탈취되었다. 그 메시지는 남반구 출신의 왜소한 미혼 소녀와 웨일스 출신의 왜소한 이혼 남자에 의해 도난당했으며, 그들의 숨은 의도는 동성애 의제를 도입하고 촉진하며 “죄의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퓨처 포 아메리카의 지도자는 사탄적 침투에 대한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는 운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성화되지 않은 메신저들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도록 너무 쉽게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탈취된 선거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가 권력 핵심 측근으로 들도록 선택해 허용한 자들이 그가 맡았던 일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도널드 트럼프가 세 번째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근에 ‘돌’ 하나가(나는 이를 ‘현재의 진리’ 바깥에 있는 이들이라고 정의한다) 외쳤는데, 그는 아마도 공적 무대의 현재 정치 환경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성을 지닌 인물로서 매우 통찰력 있는 진술을 내놓았다. 그의 이름은 빅터 데이비스 핸슨이며, 만약 당신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따라가며 그 사건들을 그분의 말씀의 예언과 비교하고 있다면, 빅터 데이비스 핸슨은 당신이 바라건대 연구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를 반향하고 있는 ‘돌’들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그의 말씀에 있는 예언들과 비교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성경이 필요하며,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계시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의 징조, 1894년 10월 1일.

X.com의 @FreyjaTarte가 올린 인터뷰에서, 핸슨은 먼저 "그들(민주당)은 트럼프를 흡혈귀로 본다"라고 말하며 시작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선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는 핸슨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트럼프가 (흡혈귀로) 부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전에 그의 죽음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그의 전체 논평은 바로 그 점을 가리킨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1:11.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언된 때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왔고, 선지자들의 이상이 봉인이 풀렸으며, 그들의 엄숙한 경고는 영광 중에 임하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했으며, 자신들에게 임한 찾아오심의 때를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사역하신 수년간—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의 귀한 마지막 세월—을, 그들은 주의 사자들을 멸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보내 버렸다. 세속적인 야망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영적 나라에 대한 초청은 그들에게 헛되이 다가왔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나라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은 빠르게 성취되어 가는 예언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징조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각을 알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때가 가까운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4-6. 시대의 소망, 235쪽.